

가족건강성과 부모감독,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s among Family Health, Parental Monitoring,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

석사 윤연정**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학과

교수 이미숙***

강사 전춘애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Master : Yun, Yon-Jung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Professor : Lee, Mi-Sook

Instructor : Jun, Chun-A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family health, parental monitoring,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Data gathered from 306 adolescents in Incheon City and Gyeonggi-do were analyz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generally perceived their family as healthy, perceived their mothers' monitoring as higher than their fathers' monitoring. And many adolescents also had positive self-esteem. Second,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among family health, parental monitoring,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Lastly, the relatively important factors affecting adolescents' self-esteem were family health, parental monitoring, and family economic status. This study suggests we need many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s in order to enhance family health, parental monitoring,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주요어(Key Words) : 가족건강성(family health), 부모감독(parental monitoring), 자아존중감(self-esteem)

I. 서론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로 일컬어지는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변화와 성적 성숙을 경험하고 인지적, 정서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

처하지 못하면 이후의 발달에 장애를 초래하며, 이 때 자아존중감이 적응력의 한 요인으로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정옥분, 1998).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Harter, 1999), 또는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감정을 말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현재의 자신에 만족해한다(Rosenberg, 1979). 여러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낮았으며 인생만족도가 높고 긍정적인 정신건강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 본 연구는 2009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주저자 : 윤연정 (E-mail : aalbongy@hanmail.net)

*** 교신저자 : 이미숙 (E-mail : misooklee@catholic.ac.kr)

우울증과 불안증이 높았고, 부적응 문제를 보였으며, 부정적 정서 상태, 과민성, 공격성, 충동성 및 소외감, 약물남용, 자살과 비행 등 적응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휘숙, 2004; 정옥분, 1998; Rosenberg, 1979). 따라서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발달에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받는 존중과 수용 및 관심의 정도에 의해 형성되므로, 자아존중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가족관련 변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청소년 자녀와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김양숙, 1995; 김전선, 1996; 김희화, 1998; 남정홍, 2001; 최인경, 2001), 가족응집력이 클 때(정옥분, 1998), 가족체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김소영, 1996)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갈등을 인지한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오수현, 2010), 가정이 화목한 청소년의 경우 화목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한상숙·김경미, 2006).

최근 가족학에서는 건강가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한 가족이란, 가족원 개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하여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며, 가족원간의 유대와 결속을 도모하고, 분명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가족문제나 위기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 공통의 가치관과 규칙을 공유하는 특성이 있다(유영주, 2001).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건강가족의 특성들 중 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 또는 가족원간의 유대와 청소년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및 영향력에 대해 다루었다. 그러나 건강가족의 또 다른 특성인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또는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와 연관시켜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건강가족과 관련하여 일부 연구(권대희·오윤자, 2004; 양순미·유영주, 2003)에서 가족건강성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 및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에 가족건강성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등장하고 있다(김윤경, 2008; 남영자, 2009; 변진혜, 2009; 임정아, 2005).

건강가족적 관점은 건강가족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가족생활의 성공을 원하는 다른 가족원들에게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며, 건강한 가족은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가족(유영주, 2001)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가족건강성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기는 또래와의 관계가 보다 중요시되면서 안전과 지지의 기반을 가족에서 또래관계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고등학생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와 학원 등 집밖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청소년기에는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의 직접적 훈육을 통한 통제나 보호보다는 집밖에 있는 자녀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절하며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는 감독자로서의 부모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감독(parental monitoring)이란 “자녀들이 어디에 있고, 어떤 친구와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모의 지식”을 의미한다(Fletcher et al., 1995; 박진경·도현심, 2001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정은 자녀가 어디에 있고, 누구와 있으며, 무엇을 하는지, 언제 집에 오는지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다(Patterson, 1982; 박진경·도현심, 2001 재인용)는 점을 고려하면, 방과 후에 청소년들이 누구와 어디에 가고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 부모가 주의를 기울이고 감독하는 것이 청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주로 자녀의 일탈행동 및 반사회적 행동과 부모의 감독을 연관시켜 설명한 연구들(박진경·도현심, 2001; 박선영 등, 2010; Stattin & Kerr, 2000)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감독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감독은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Maja & Wim, 1997), 부모가 감독을 많이 할수록 남녀 청소년은 긍정적 자아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리, 2005). 또한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지지를 많이 할수록, 자녀의 행동을 관리 감독할수록, 심리적으로 억압하지 않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높고 이것이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김수희, 2009), 초기 청소년 남녀 모두에게 가족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은 이들의 우울감소에 크게 기여하였다(DuBois et al., 1992). 흡연과 약물복용, 학업성취의 저하, 위험한 성적 행동 역시 부모의 감독 소홀과 연관이 있었다(Crouter et al., 1999). 즉, 자녀행동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소홀할 경우 청소년들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이는 곧 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감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건강성, 부모감독,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성별, 부모학력, 가정경제수준이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청소년보다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가족건강성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영자, 2009; 변진혜, 2009). 중/고등학생 변인을 살펴보면, 중학교 2, 3학년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윤경(2008)의 연구에서는 2학년이 3학년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등

학교 1, 2학년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정아(2005)의 연구에서는 2학년이 1학년보다 가족건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가족건강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황현정, 2008)와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난 연구(김윤경, 2008, 임정아, 2005)가 있어 불일치를 보인다.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신의 가정경제수준을 높게 지각한 청소년의 경우 가족건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윤경, 2008; 남영자, 2009; 변진해, 2009; 임정아, 2005).

부모감독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소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모감독의 영향을 더 받기 쉬운 대상이라는 연구(안혜원, 2008)와 성별 차이가 없다는 연구(박진경·도현심, 2001; 황숙영, 2007; Stattin & Kerr, 2000)가 있어 불일치를 보인다. 부모감독의 경우, 중고등학생, 부모의 학력,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경우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자아존중감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보고한 연구들과 비교하여 일부 연구(김수희, 2009; 오수현, 2010)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자녀의 성차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키우고자 하는 가정의 분위기로 인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아존중감의 성별 차이에 대해 더 많은 규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밖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은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금미현, 2007), 고등학생과의 차이가 어떠한지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 반면,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서는 비교적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였다. 즉, 가정의 경제수준을 높게 지각한 청소년은 낮게 지각한 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김윤경, 2008; 금미현, 2007; 남영자, 2009; 변진해, 2009).

이상을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가족건강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가족건강성을 구성하는 일부 하위영역인 가족원간 유대 및 의사소통을 주로 연구해왔으므로, 문제해결능력 및 가치체계공유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가족건강성과 관련지어 규명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부모감독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부와 모의 감독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와 맺는 관계의 특성이 각각 다르고, 자녀 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음(최지선 등, 2009)을 고려할 때,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감독이

어떠한지 비교해보고 이들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구분하여 규명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가족건강성과 부모감독의 상호관련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가족건강성과 부모감독을 함께 고려했을 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 비교해봄으로써 보다 의미 있게 기여하는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중/고등학생, 성별, 부모학력, 가정경제수준에 따라 가족건강성, 부모감독,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결과들은 대체로 일관성이 부족하고 선행연구 또한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들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영향력이 어떠한지 함께 관련지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건강성, 부모감독,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대해 규명해보고자 하며,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고려한 가운데 가족건강성 및 부와 모의 감독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인생주기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청소년기 가족의 건강성과 부모역할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나아가 청소년과 부모 대상의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증적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가족건강성, 부모감독,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가족건강성, 부모감독, 청소년 자아존중감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중/고등학생, 성별, 부모학력, 가정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건강성, 부모감독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경인지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320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은 80%이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06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중학

<표 1>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306)

구 분		빈도(%)	구 분		빈도(%)
중/고등	중학생	148(48.4)	부학력	중졸 이하	15(5.0)
	고등학생	158(51.6)		고졸	140(46.2)
	계	306(100.0)		전문대졸	4(1.3)
성 별	남학생	146(47.7)		대학교졸	119(39.3)
	여학생	160(52.3)		대학원 이상	25(8.2)
	계	306(100.0)	계	303(100.0)	
형제수	1명	38(12.4)	모학력	중졸 이하	28(9.3)
	2명	202(66.0)		고졸	173(57.5)
	3명	51(16.7)		전문대졸	6(2.0)
	4명 이상	15(4.9)		대학교졸	86(28.5)
	계	306(100.0)		대학원 이상	8(2.7)
가족형태	핵가족	281(91.8)	계	계	301(100.0)
	확대가족	25(8.2)		가정 경제수준	하
	계	306(100.0)	중하		54(17.8)
모취업	취업함	134(44.2)	중		177(58.0)
	취업하지 않음	169(55.8)	중상		61(20.0)
	계	303(100.0)	상		5(1.6)
부모 결혼상태	함께 살고 계심	280(92.1)	계	계	305(100.0)
	별 거	10(3.3)		월소득	200만원 미만
	이 혼	8(2.6)	200~300만원 미만		142(47.1)
	사 별	4(1.3)	300~400만원 미만		62(20.5)
	기 타	2(.7)	400만원 이상		65(21.5)
계	304(100.0)	계	302(100.0)		

생은 48.4%, 고등학생은 51.6%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은 47.7%, 여학생은 52.3%이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46.2%, 대학교 졸업 39.3%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57.5%, 대학교 졸업 28.5%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은 중(58%)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중이하(20.4%)와 중상이상(21.6%)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가족건강성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가족의 건강한 가족 특성과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제작한 어은주·유영주(1995)의 가족의 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의 건강성 척도는 가족원간의 유대(10문항),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9문항),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6문항), 그리고 가족원간의 의사소통(9문항) 등 4개 하위영역으로 총 3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결코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형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영역의 경우에도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원간의 유대수준이 높고, 가족원간의 가치공유수준이 높으며, 가족원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이 높고,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각 하위영역별로 문항 간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α 는 가족원간의 유대 .87,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83,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82, 그리고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84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는 .95로 나타나 양호한 척도로 볼 수 있다.

2) 부모감독

부모의 감독을 측정하기 위해 육선화 외 5인(2006)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중 부모감독에 관한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들 문항은 자녀가 하루 동안 어디에 있는지, 집밖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지, 자녀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자녀가 귀가시간이나 취침시간을 지키는지에 대해 부모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각 문항은 '결코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형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α 는 아버지 감독은 .85, 어머니 감독은 .78로 각각 나타났다.

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Rosenberg의 Self-Esteem Scale(RSE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이 응답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총 10개 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형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때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은 역점수화 하였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α 는 .80으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06년 2월에 중·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용어의 해석이 어렵거나 애매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본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2006년 3월에 경인지역의 고등학교 2곳과 중학교 2곳의 중·고등학생 총 400명을 대상으로 각 학급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 2>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및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밖에 각 측정도구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가족건강성, 부모감독,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경향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족건강성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이 3.38점으로 척도의 점수 범위를 고려할 때 중간수준 이상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족을 대체로 건강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가족건강성의 4개 하위영역별 평균을 살펴보면, 가족원간 유대는 3.55, 문제해결능력은 3.50, 가족 내 의사소통은 3.39, 가족원간 가치체계 공유는 3.11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감독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아버지 감독은 평균 3.09로 척도 점수 범위의 중간수준임에 반해 어머니 감독은 평균 3.78로 나타나 척도 점수 범위의 중간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평균 3.41로 척도의 점수범위를 고려할 때 중간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건강성, 부모감독,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차이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중/고등학생, 성별, 부모학력, 가정경제수준)에 따라 가족건강성, 부모감독, 그리고 청소년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중/고등학생에 따른 차이

<표 3>에 의하면, 중/고등학생에 따라 가족건강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신의 가족을 더 건강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t=2.42, p<.05$).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족원간 유대($t=2.14, p<.05$), 가치체계공유($t=2.67, p<.01$), 문제해결능력($t=2.00, p<.05$), 그리고 의사소통($t=2.03,$

<표 2> 가족건강성, 부모감독,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전반적 경향

(N=306)

	내 용	M(SD)	척도의 점수범위
가족건강성	가족원간 유대	3.55(.71)	1~5점
	가치체계공유	3.11(.62)	
	문제해결능력	3.50(.68)	
	의사소통	3.39(.65)	
	계	3.38(.61)	
부모감독	부감독	3.09(.97)	1~5점
	모감독	3.78(.80)	1~5점
청소년 자아존중감		3.41(.63)	1~5점

<표 3> 중/고등학생에 따른 가족건강성, 부모감독,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차이

(N=306)

		중학생 (n=148)	고등학생 (n=158)	t
가족건강성	가족원간 유대	3.64(.67)	3.47(.73)	2.14*
	가치체계공유	3.21(.58)	3.02(.66)	2.67**
	문제해결능력	3.58(.63)	3.42(.72)	2.00*
	의사소통	3.47(.59)	3.32(.69)	2.03*
	계	3.47(.56)	3.30(.65)	2.42*
부모감독	부감독	3.21(.97)	2.99(.96)	2.01*
	모감독	3.85(.81)	3.71(.78)	1.50
청소년 자아존중감		3.49(.64)	3.34(.61)	2.07*

*p<.05, **p<.01

<표 4> 성별에 따른 가족건강성, 부모감독,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차이

(N=306)

		남학생 (n=146)	여학생 (n=160)	t
가족건강성	가족원간 유대	3.36(.68)	3.73(.69)	-4.66***
	가치체계공유	3.05(.62)	3.16(.63)	-1.47
	문제해결능력	3.40(.67)	3.60(.68)	-2.57*
	의사소통	3.29(.62)	3.49(.66)	-2.75**
	계	3.27(.60)	3.49(.60)	-3.25**
부모감독	부감독	3.09(.97)	3.10(.97)	-.09
	모감독	3.50(.79)	4.03(.72)	-6.18***
청소년 자아존중감		3.33(.63)	3.49(.62)	-2.23*

*p<.05, **p<.01, ***p<.001

p<.05) 모두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다음으로 중/고등학생에 따라 아버지의 감독(t=2.01, p<.05)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어머니의 감독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아버지의 감독정도를 더 많이 지각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감독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07, p<.05).

2) 성별에 따른 차이

<표 4>에 의하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가족건강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가족을 더 건강하게 지각하고 있다(t=-3.25, p<.01). 하위영역별로 보면, 가족원간 유대(t=-4.66, p<.001), 문제해결능력(t=-2.57, p<.05), 그리고 의사소통(t=-2.75, p<.01)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부모감독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비교하여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감독정도를 더 많이 지각하였다

(t=-6.18, p<.001). 반면, 아버지의 감독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23, p<.05).

3)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

<표 5>에 의하면,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가족건강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이 전문대졸 이하인 집단보다 자신의 가족을 더 건강하게 지각하였다(t=-2.84, p<.01), 하위영역별로 보면, 가족원간 유대(t=-2.77, p<.01), 가치체계공유(t=-2.99, p<.01), 문제해결능력(t=-2.38, p<.05), 그리고 의사소통(t=-2.19, p<.05) 모두 아버지 학력이 대졸 이상일 때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아버지의 감독(t=-2.11, p<.05)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어머니의 감독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일 때 전문대졸 이하보다 청소년은 아버지의 감독정도를 더 많이 지각하였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표 5> 부모학력에 따른 가족건강성, 부모감독,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차이

(N=306)

		부학력		t	모학력		t
		전문대졸이하 (n=159)	대졸이상 (n=144)		고졸이하 (n=201)	전문대졸이상 (n=100)	
가족 건강성	가족원간 유대	3.45(.69)	3.67(.72)	-2.77**	3.46(.68)	3.75(.73)	-3.43**
	가치체계공유	3.01(.59)	3.22(.64)	-2.99**	3.02(.61)	3.29(.63)	-3.54***
	문제해결능력	3.42(.68)	3.60(.68)	-2.38*	3.41(.68)	3.70(.66)	-3.51**
	의사소통	3.32(.65)	3.48(.63)	-2.19*	3.33(.64)	3.53(.64)	-2.61**
	계	3.29(.60)	3.49(.61)	-2.84**	3.30(.60)	3.56(.61)	-3.55***
부모감독	부감독	2.99(.96)	3.22(.95)	-2.11*	2.96(.94)	3.39(.94)	-3.68***
	모감독	3.73(.78)	3.85(.81)	-1.32	3.66(.83)	4.01(.66)	-3.90***
청소년 자아존중감		3.34(.62)	3.50(.63)	-2.25*	3.34(.62)	3.57(.62)	-3.08**

*p<.05, **p<.01,***p<.001

유의한 차이가 있다.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일 때 전문대졸 이하보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다(t=-2.25, p<.05).

다음으로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가족건강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집단이 고졸 이하인 집단의 청소년보다 자신의 가족을 더 건강한 것으로 지각하였다(t=-3.55, p<.001). 하위영역별로 보면, 가족원간 유대(t=-3.43, p<.01), 가치체계공유(t=-3.54, p<.001), 문제해결능력(t=-3.51, p<.01), 그리고 의사소통(t=-2.61, p<.01) 모두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일 때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아버지의 감독(t=-3.68, p<.001)과 어머니의 감독(t=-3.90, p<.001)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일 때 고졸 이하보다 청소년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감독을 더 많이 지각하고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t=-3.08, p<.01),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일 때 고졸 이하보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차이

<표 6>에 의하면, 가정경제수준(1)에 따라 가족건강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을 중이상이라고 인식할 때 중미만과 비교하여 청소년은 자신의 가족을 더 건강한 것으로 지각하였다(t=-3.66, p<.001). 하위영역별로도 가족원간 유대(t=-3.22, p<.01), 가치체계공유(t=-3.39, p<.01), 문제해결

능력(t=-3.13, p<.01), 그리고 의사소통(t=-3.62, p<.001) 모두 가정경제수준을 중이상이라고 인식할 때 중미만과 비교하여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정경제수준에 따라 부모감독은 아버지의 감독(t=-2.29,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어머니의 감독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정경제수준을 중이상이라고 인식할 때 중미만이라고 인식할 때보다 아버지의 감독을 더 많이 지각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정경제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차이가 있다. 가정경제수준을 중이상으로 인식한 청소년이 중미만이라고 인식한 경우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23, p<.001).

3.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건강성, 부모감독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건강성 및 부모감독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 앞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값을 산출하였다. 다중공선성을 좀 더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공차한계값이 필요하며, 공차한계값이 0.1이하일 때는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한다(송지준, 2009; 우수명, 2007). 분석 결과, 공차한계값이 0.6에서 0.9까지 모두 기준값 0.1보다 높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더빈 왓슨 계수도 2.08로 기준값 2에 가까우므로 잔차 간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앞서 분석한 연구문제에서 <표 4>와 같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이에

1) 가정경제수준을 중미만(62명), 중(177명), 중상이상(66명) 집단으로 구분하여 일원분산분석 및 Scheffe 검증을 실시한 결과, 중미만 집단이 나머지 두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중집단과 중상이상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적게 나타나, 본 분석에서는 중미만(n=62)과 중이상(n=243) 집단으로 구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6> 가정경제수준에 따른 가족건강성, 부모감독,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차이

(N=305)

		가정의 경제수준		t
		중미만 (n=62)	중이상 (n=243)	
가족건강성	가족원간 유대	3.30(.67)	3.62(.70)	-3.22**
	가치체계공유	2.87(.64)	3.17(.60)	-3.39**
	문제해결능력	3.27(.73)	3.57(.66)	-3.13**
	의사소통	3.13(.63)	3.45(.64)	-3.62***
	계	3.14(.59)	3.45(.60)	-3.66***
부모감독	부감독	2.84(.95)	3.16(.96)	-2.29*
	모감독	3.73(.81)	3.79(.80)	- .49
청소년 자아존중감		3.19(.68)	3.47(.60)	-3.23**

*p<.05, **p<.01,***p<.001

<표 7>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건강성, 부모감독, 청소년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여학생 160명, 남학생 146명)

	남 학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중고등학생(가변수)		-.42 ***	-.30 ***	-.19*	-.24 **	-.28 **	-.23 **	-.24 **	-.27 **	-.22 **	-.16	-.14
2.부학력	-.27 ***		.61 ***	.17*	.25 **	.30 ***	.22 **	.24**	.28 **	.13	.17 *	.25 **
3.모학력	-.35 ***	.64 ***		.11	.16	.25 **	.17 *	.14	.19 *	.20 *	.30 ***	.20 *
4.경제수준	-.15	.24 **	.31 ***		.21 *	.21 *	.25 **	.24 **	.24 **	.20 *	.14	.25 **
5.가족원간유대	-.02	.05	.21 **	.25 **		.78 ***	.83 ***	.87 ***	.96 ***	.55 ***	.57 ***	.43 ***
6.가치체계공유	-.03	.04	.15	.29 ***	.77 ***		.70 ***	.75 ***	.88 ***	.53 ***	.52 ***	.45 ***
7.문제해결능력	-.01	.08	.26**	.24 **	.79 ***	.76 ***		.79 ***	.89 ***	.50 ***	.54 ***	.40 ***
8.의사소통	-.01	.01	.16*	.22 **	.85 ***	.75 ***	.77 ***		.93 ***	.47 ***	.51 ***	.39 ***
9.가족건강성(전체)	-.02	.05	.21**	.27 ***	.94 ***	.89 ***	.89 ***	.93 ***		.56 ***	.58 ***	.46 ***
10.부감독	-.02	.12	.25**	.15	.52 ***	.47 ***	.43 ***	.49 ***	.53 ***		.70 ***	.17 *
11.모감독	-.02	.02	.09	.00	.50 ***	.64 ***	.40 ***	.53 ***	.52 ***	.52 ***		.30 ***
12.청소년 자아존중감	-.10	.06	.21	.26 **	.30 ***	.30 ***	.33 ***	.28 ***	.33 ***	.18 *	.28 ***	

*p<.05,**p<.01,***p<.001, 가변수: (고등학생=1, 중학생=0)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별로 나누어 변인들 간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먼저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남녀학생 모두 가족건강성과 4개 하위영역들은 모두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가족건강성의 4개 하위영역들은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가족건강성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남학생의 경우(r=.46, p<.001) 여학생(r=.33, p<.001)보다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가족이 건강하다고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감독과 청소년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감독과 r=.18(p<.05), 어머니의 감독과 r= .28(p<.001)의 상

관을 보였으며, 남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감독과 r=.17 (p<.05), 어머니의 감독과 r= .30(p<.001)의 상관을 보였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남녀학생 모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감독과 상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의 감독과 어머니의 감독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다(남학생 r=.70, p<.001, 여학생 r= .52, p<.001). 다음으로 가족건강성과 부모감독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 감독과 r=.53, 어머니 감독과 r=.52이었으며, 남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 감독과 r=.56, 어머니 감독과 r=.58로 각각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가족이 건강하다고 지각한 청소년은 부모의 감독도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음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표 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여학생)

(N=160)

독립변수	종속변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사회	중고등학생(가변수)	-.02	-.02	-.04	-.04	-.02	-.02
인구	부학력	-.09	-.17	-.07	-.13	-.07	-.14
학적	모학력	.14	.25	.10	.18	.12	.21
변인	경제수준	.21	.24**	.15	.18*	.19	.22**
	가족건강성			.25	.26**	.16	.16
	부감독					-.08	-.12
	모감독					.22	.26**
	상 수	2.73***		2.12***		1.61***	
	R ²	.11		.17		.21	
	ΔR^2			.06		.04	
	F	4.76**		5.95***		5.56***	

*p<.05, **p<.01,***p<.001, 가변수: (고등학생=1, 중학생=0)

<표 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 (남학생)

(N=146)

독립변수	종속변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사회	중고등학생(가변수)	-.00	-.00	.07	.06	.04	.04
인구	부학력	.09	.17	.05	.09	.04	.07
학적	모학력	.05	.07	.04	.07	.04	.06
변인	경제수준	.18	.22*	.12	.15	.14	.16*
	가족건강성			.42	.40***	.46	.43***
	부감독					-.15	-.22*
	모감독					.12	.15
	상 수	2.42***		1.30***		1.22**	
	R ²	.11		.25		.27	
	ΔR^2			.14		.02	
	F	4.36**		9.04***		7.18***	

*p<.05, **p<.01,***p<.001, 가변수: (고등학생=1, 중학생=0)

<표 9>에 제시하였다. 1단계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는 가족건강성, 3단계는 부와 모의 감독을 각각 투입하였다.

<표 8>에서 여학생의 경우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가정의 경제수준($\beta = .24, p < .01$)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1%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가족건강성($\beta = .26, p < .01$), 가정의 경제수준($\beta =$

$.18, p < .05$) 순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17%로서 1단계보다 6%포인트 증가하였다. 3단계에서는 어머니의 감독($\beta = .26, p < .01$), 경제수준($\beta = .22, p < .01$)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전체 설명력은 21%로서 2단계보다 4%포인트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표 9>에서 남학생의 경우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가정의 경제수준($\beta = .22, p < .05$)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1%이다. 2단계에서는 가족건강성($\beta = .40, p < .001$)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25%로서 1단계보다 14%포인트 증가하였다. 3단계에서는 가족

2) 가족건강성을 구성하는 4개 하위영역들(가족원간 유대, 가치체계공유,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을 보이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전체)을 회귀분석에 투입하였다.

건강성($\beta = .43, p < .001$), 아버지의 감독($\beta = -.22, p < .05$), 경제 수준($\beta = .16, p < .05$)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명력은 27%로서 2단계보다 2%포인트 증가하였다.

IV.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아존중감에 기여하는 가족환경 변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건강가족적 관점의 대두와 함께 가족건강성 개념은 오늘날 가족학 연구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자아정체감의 확립 및 과도한 학업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학교와 학원 등 집밖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녀의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는 부모의 감독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과 부모감독, 그리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상호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수준은 3.38점으로 척도의 점수범위를 고려할 때 중간수준 이상이다. 4개의 하위 영역별 평균은 가족 간 유대가 3.55, 문제해결능력이 3.50, 가족 내 의사소통이 3.39로서 모두 중간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가족원간 가치체계공유는 3.11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가족원간의 유대,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등의 가족 내 상호작용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가족원간 가치관이나 규범의 공유는 가족구성원간 세대차이가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은주(1996)와 권대희·오윤자(2004)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는데, 청소년기의 특성과 연관되는 것으로 연령과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감독의 경우에는 청소년 자녀에 대한 아버지 감독의 평균은 3.09로 중간수준이며, 어머니 감독의 평균은 3.78로 중간수준 이상으로 나타나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더 많이 감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어머니가 자녀양육의 주된 담당자로서 적극적으로 자녀감독을 수행하는 반면,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자녀양육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감독이 중간수준 이상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이 시기의 부모들이 자녀의 집밖에서의 생활이나 친구관계에 대해 관심과 감독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기의 특성인 부모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 추구에 대한 욕구(유안진, 1992)로 인해 부모의 감독을 과대평가하여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머니와 비교하여 아버

지의 감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으므로 추후 이를 규명해보는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평균은 3.41로 나타나 척도의 점수범위를 고려할 때 대체로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중/고등학생, 성별, 부모학력, 가정경제수준)에 따라 가족건강성, 부모감독,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먼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가족건강성을 더 높게 지각하였으며, 아버지의 감독도 더 많은 것으로 지각하였고, 자아존중감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생보다 입시나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고,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덜 이루어진 상황에서,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가족건강성을 더 높게 지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중학생은 아직 어리다는 주변의 평가가 반영되어 고등학생에 비해 아버지의 감독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에는, 학교 성적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Hong, 2002) 현실에서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보다 자신감이 있으며 자신이 소중하고 무엇이든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여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금미현(2007)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은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한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한 학년을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어머니의 감독은 중/고등학생에 따라 차이가 없는데, 이는 자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어머니가 자녀양육의 주된 담당자로서 자녀감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족건강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가족건강성의 차이가 없다는 남영자(2009), 변진해(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좀 더 규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감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감독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모감독의 영향을 더 받기 쉬운 대상(안혜원, 2008; Stattin & Kerr, 2000)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학생은 성역할 사회화의 결과로 남학생보다 가족 내 상호작용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관계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모녀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감독수준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박진경·도현심, 2001; 황숙영, 2007; Stattin & Kerr, 2000)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감독정도에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 추후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

들(박영애·최영희, 2002; 김영숙, 1999)과 상반된다. 또한 남아선호사상과 같은 전통적 가치관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정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지각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난 연구들(김윤경, 2008; 도금혜 등, 2006)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자와 남자의 출발선이 똑같아지고, 남녀의 구분 없이 동등하게 부모의 관심을 받으며, 동등한 교육을 받고, 동등한 사회진출의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알파걸이 등장한다는 Kindlon(2006)의 주장과 관련되는 것인지 추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부모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을 때 가족건강성이 더 높았고, 부모감독의 정도가 더 높았으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도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난 권대희와 오운자(2004), 김윤경(2008), 임정아(2005)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에게 긍정적 양육태도를 보임으로써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보다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들(김윤경, 2008; 금미현, 2007)과도 일치한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는 방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겠다. 건강한 가족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양육적이고 지지적으로 양육행동을 수행하는 가족으로, 청소년 자녀의 부모는 자녀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수준의 감독을 하며 지지적 행동을 하는 등 부모의 감독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이나 중요성 등 자신의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도 높게 나타나고, 아버지의 감독이 더 많이 이루어졌으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한다는 선행연구들(권대희·오운자, 2004; 김윤경, 2008; 남영자, 2009; 변진혜, 2009; 임정아, 2005; 윤세은, 2000)과 일치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가족이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김윤경, 2008; 금미현, 2007; 변진혜, 2009)은 가정환경이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는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다양한 문화적 조건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의 지적·신체적·정서적 쇠퇴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Lorenz 등(1992)은 경제적 스트레스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가정의 경제

수준이 중이상일 때보다 중미만일 때 특히 아버지의 감독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도 상대적으로 낮았으므로 이들 변인간의 인과성을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함께 가족건강성과 부모감독을 함께 고려했을 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여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감독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1%이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감독을 적게 할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7%이다. 이로써 성별과 관계없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감독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학생에게는 어머니의 감독이, 남학생에게는 아버지의 감독이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남학생의 경우 아버지 감독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어머니 감독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감독을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감독의 개념에 대해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자녀가 어디에 있고, 어떤 친구와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부모감독에 대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관심의 표현으로 인식하여 긍정적으로 정의하는 경우와 달리 자녀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자녀행동을 체크하고 감시하는 부정적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Stattin & Kerr, 2000)는 지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부모감독에 대해 여학생은 긍정적 개념으로 지각한 반면, 남학생은 자신의 생활을 감시하는 부정적 개념으로 지각하여 그들의 자아존중감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감독이,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감독이 각각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규명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부모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감독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반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지도와 감독이 상이하게 접근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앞으로 부모감독과 관련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겠다.

다음으로 여학생과 비교하여 남학생의 경우에는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한 가족 안에서 상호작용한 청소년일수록 자신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가지며, 가족에 대해 만족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김소영,

1996)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추후 이를 검증해보는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특히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은 부모와 가족변인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접근할 때 교육의 효과가 증대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Harter(1990)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단순히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낮은 자아존중감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정옥분, 1998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특히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그들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과 부모감독에 초점을 둔 가족생활교육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가정경제수준이 낮고 부모의 감독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고 학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건강가정지원센터 등과 같은 공식적인 가족지지체계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횡단적 자료이므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부모감독, 자아존중감 간에 나타난 유의한 관계는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부모감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고 유추해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족을 건강하다고 지각하고 부모감독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주관적 경험을 중시하여 그들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부모감독을 측정하였는데, 가족건강성과 부모감독에 대해 청소년과 부모의 지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건강성과 부모감독에 대해 부모와 청소년이 공통으로 지각하는 영역과 상이하게 지각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규명해 보고 이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지어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가족건강성 척도 중 가치체계 공유에 해당하는 문항들(예; 우리 가족은 서로 비슷한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있다. 우리 가족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서로 일치한다 등)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가족에게 적합한 척도를 재구성하는 과제도 선행

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가족 변인만 다루었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학교와 또래환경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요인들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건강한 가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건강한 가족이 가족원 개개인의 발달, 특히 청소년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입증해주었다고 보겠다. 또한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에는 어머니의 감독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에는 아버지의 감독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지도와 감독이 상이하게 접근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부모감독과 관련된 부모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자녀를 둔 가족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또한 연구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대희·오윤자(2004).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15-127.
- 금미현(200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영(1996).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희(2009).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1999).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가정환경 변인과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3(1), 69-98.
- 김윤경(2008).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화·김경연(1998).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2), 47-60.
- 남영자(2009). **가족건강성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금혜·최보가·이지민(2006).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에 따른 공격성과 자아존중감**. **대한가정학회지**, 44(2), 1-11.
- 박선영·도현심·김민정(2010). 어머니의 감독이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3), 139-150.

- 박영애 · 최영희 · 박인전 · 김향은(200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관계-아동의 성에 따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5(4)**, 43-60.
- 박진경 · 도현심(2001). 어머니의 감독 및 감독방법이 청소년의 외현화 · 내면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129-140.
- 변진해(2009).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지준(2009).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과주: 21세기사.
- 안혜원(2008).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부모 애착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 · 유영주(2003).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9)**, 121-134.
- 어은주(1996). 한국 도시 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어은주 · 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5.
- 우수명(2007). **마우스로 잡는 SPSS 14.0**. 서울: 인간과 복지.
- 오수현(2010).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옥선화 · Martha Rueter · 이미숙 · 이주리 · 권희경 · 남영주(2006). 청소년자녀가 가족의 리질리언스 척도개발연구: 척도의 타당화 검증에 중점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4(1)**, 59-74.
- 유영주(2001). **건강가족연구**. 서울: 교문사.
- 윤세은(2000). 청소년이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리(2005). 청소년이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6(2)**, 263-293.
- 임정아(2005). 청소년기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연구. 서울 여자대학교 기독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희숙(2004). **청년심리학**. 학지사: 서울.
- 정옥분(1998). **청년발달의 이해**, 학지사: 서울.
- 최지선 · 박성연 · 전춘애(2009). 사회인구학적 변인,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일상생활 참여가 아버지의 자녀교육 관심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5)**, 167-181.
- 한상숙 · 김경미(200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6(1)**, 37-44.
- 황숙영(2007). 부모애착, 부모감독, 또래관계가 중학생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현정(2008).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건강성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hoa, R.(1994). Beyond parental control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understanding Chinese parenting through the cultural notion of training. *Child Development*, *65*, 1111-1119.
- Crouter, A. C., Helms-Erikson, H., Updegraff, K. & McHale, S. M.(1999). Conditions underlying parents' knowledge about children's daily lives in middle childhood: Between-and within-family comparisons. *Child Development*, *70*, 246-259.
-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Adan, A. M., & Evans, E. G. (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er,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3*, 542-557.
- Fletcher, A. C., Darling, N., & Steinberg, L.(1995). Parental monitoring and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 substance use. In J. McCord(Ed.), *Coercion and punishment in long-term perspectives*(pp. 259-27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ter, S. (1990). Self and identity development. In S. S. Feldman & G. R. Elliot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rter, S. (1999).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A developmental perspective*. N.Y.: The Guilford Press.
- Hong, Z. R.(2002). An investigation of self-esteem and school achievement of taiwanese secondar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USA.
- Kindlon, D.(2006). 최정숙 역(2007). **새로운 여자의 탄생 알과결**. 미래의 창.
- Lorenz, F. O., Simons, R. L., Whitbeck, L. B.(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 Maja, D. & Wim, M.(1997). Peer relations in adolescence: Effects of parenting and adolescents' self-concept. *Journal of Adolescence*, *20(2)*, 163-176.
- Patterson, G. R.(1982). *Coercive family process: A social learning approach* (Vol.3). Eugene, Oreg.: Castalia.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Robert E. Krie-

ger Publishing Company, Inc. : Malabar, Florida.
Stattin, H., & Kerr, M.(2000). Parental monitoring: A
interpretation. *Child Development*, 71(4), 1072-1085.

- 접 수 일 : 2011년 01월 15일
- 심 사 일 : 2011년 02월 19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04월 20일